

최정우 리더십 통했다... 포스코, 매출 76.4조 '사상최대'

posco

작년 매출 전년대비 32% 올라
영업익 9.2조로 283% 급상승

■ 생산감소, 경기회복 맞물려
조선용 후판가격 인상 수익성 ↑



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가 지난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최정우 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철강 생산을 감소함과 동시에 전방 산업 수요 증가 덕분이다.

포스코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은

76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9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83.8% 늘었다.

이로써 포스코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연결 기준 매출 70조원대와 9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최대 매출은 지난 2011년 기록한 68조9000억원이었다. 영업이익 최대치는 지난 2008년도 달성한 7조2000억원이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39조9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50.6%, 영업이익은 484.6% 증가했다.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소와 코로나 19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철강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포스코는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적극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지난

해 하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을 톤당 40만원 가량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현대차·기아와 협상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자동차용 강판 가격도 톤당 5만원과 12만원씩 인상했다.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실제 주력 사업인 철강 부분의 경우 매출은 전년 대비 50.6% 증가한 39조9000억원을, 영업이익은 484.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연결 기준 증가폭 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면서 그룹 전체 실적 개선에 이끌었다.

포스코는 올해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 초 세계철강협회는 2022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억9600만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수요 회복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철강업계의 호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과 제철용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철강업체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선박 수요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따른 차량 생산 확대 등으로 올해도 여전히 실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포스코,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 첫 출하

'네온 생산설비 준공·출하식' 개최
국내수요의 16% 가량 충족 예상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Ne)의 생산 설비 및 기술을 국산화하고 성공적으로 첫 제품을 출하했다.

포스코는 12일 광양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유병욱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이진수 광양제철소장, 유원양 TEMC(티이엠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온 생산 설비 준공 및 출하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 유병욱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은 "국내 강소기업인 TEMC와 협력하여 산업가스 시장의 숙원 과제였던 네온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소기업과 상생하는 ESG경영을 통해 희귀가스의 기술적 해외 의존도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네온(Ne), 제논(Xe), 크립톤(Kr) 등 희귀가스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0년 약 1600억원 규모였던 국내 희귀가스 시장이 2023년에는 약 28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연평균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업계는 희귀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네온은 공기 중에 0.00182%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희귀가스로, 반도체 노광공정에서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 가스의 원재료 중 하나다. 과거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을 겪으며 국산화 시도가 이뤄졌지만, 외국 기술에 의존한 개발에 그쳤고 이 역시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수요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전문기업인 TEMC와 협력해 2019년 말부터 약 2년에 걸쳐 네온 생산의 완전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제철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 중인 대형 공기분리장치를 활용해 광양제철소 산소공장과 TEMC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의 네온 생산 설비를 자체 개발했다. 또 이를 통해 추출한 네온을 TEMC가 독자 기술로 정제한 후 완제품인 엑시머 레이저 가스까지 생산하는 전 공정 국산화를 완성했다.

이번에 준공한 설비는 고순도 네온 기준 연간 약 2만2000Nm3(노멀 입방미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수요의 16%가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시운전을 통해 제품 품질 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설비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



메르세데스-벤츠 EQS에 탑재된 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LG전자

LG, 벤츠EQ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

계기판·CIC·CDD 등 3개화면 통합
'정면충돌 테스트' 통과 안정성 높여

LG전자가 메르세데스-벤츠EQS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책임진다.

LG전자는 벤츠 2022년형 EQS에 벤츠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라스틱 올레드로 만들어 계기판과 중앙정보디스플레이(CID), 보조석 디스플레이(CDD) 등 3개 화면을 하나로 통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구현하고 터치가 가능한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초고화질 해상도, 얇은 베젤도 구현했다. 유리 성형과 표면 처리, 디스플레이 접합 등 차별화

된 기술을 적용해 완성했다.

안정성도 높였다. 정면 충돌시 탑승자 머리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내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 보호에 해당하는 '정면 충돌 테스트'도 통과했다.

앞서 LG전자는 2020년에 메르세데스-벤츠 AG의 모회사인 다임러 그룹으로부터 탁월한 성능과 파트너십을 인정받으며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인포테인먼트 부품의 기능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커지는 상황, LG전자는 이런 업계 트렌드를 반영하고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편의를 높여 주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쉐보레, 초대형 SUV '타호' 사전계약

한국지엠 쉐보레가 국내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쉐보레는 12일부터 미국 경찰·FBI가 사용하는 초대형 SUV '더 앵솔루트 타호'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타호는 쉐보레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로 지난 1994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풀사이즈 SUV다. 압도적인 크기의 차체 사이즈와 실내공간은 물론, 첨단 편의 및 안전장비를 탑재했으며, 어디서든 존재감을 과시하는 초대형 SUV에도 불구하고 타호 특유의 대담한 디자인 DNA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볼드하면서도 한층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호차량으로 자주 등

장하는 타호는 GM 브랜드 산하 캐딜락 에스칼레이드와 GMC 유콘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 차량으로 5세대에 걸쳐 새롭게 태어난 모델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타호는 최고 등급의 하이컨트리(High Country) 모델로, 2열 파워 릴리즈 기능이 적용된 캡틴시트와 3열 파워 폴딩 시트가 탑재된 7인승 모델이다. 전장 5352mm, 전폭 2057mm, 전고 1925mm의 타호는 22인치에 달하는 크롬 실버 프리미엄 페인티드 휠을 장착했다.

/양성운 기자



/양성운 기자

롯데케미칼 ESG등급 'BBB'로 상승

롯데케미칼은 자사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이 기존 'BB'에서 'BBB' 등급으로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MSCI ESG 등급은 전 세계 상장기업들을 업종별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분야를 평가하는 것으로, C에서 AAA까지 7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자산규모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당 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여수공장 CCU 파일럿 설비 구축, 수소 성장 로드맵을 통한 저탄소 대체 에너지 사용 및 관련 청정기술 투자 등 탄소배출과 청정기술 기회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 미래사업 총괄 'CSO부문' 신설

부문장에 허성 부사장 발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래 사업을 총괄할 CSO부문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CSO부문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문장은 허성 부사장이 맡는다. 미국 메탈세일즈 구매부문 부사장, 세계도료(페인트) 분야 1위 기업인 '악조노벨' 총괄이사를 거쳐 2014년부터 3년간 삼화페인트 사장을 역임하고 한화L&C 등에서 COO로서 30년 가까이 국내

외 화학산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CSO부문은 미래전략실과 EX(Energy X-change)사업단으로 편제된다. 미래전략실은 아라미드 등 기존 주력 사업의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발굴을 위해 산업소재, 화학, 필름/전자재료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전략적 인수합병과 합작법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사업단은 ▲연료전지는 물론 수소 생산 및 저장 관련 기술 개발 구체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수소 이외의 미래 에너지 사업 확대 등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